

의치장착 한센인의 구강건조증이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The effect of xerostomia on perceived oral health among Hansen's people wearing dentures

Dong-Chan Oh

Sorokdo National Hospital

Objective : This study examined xerostomia of Hansen's people wearing dentures, their perceived oral health as well as how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and xerostomia affected their perceived oral health

Methods : A total of 100 subjects, who were 65 years or older and used in the sorokdo national hospital,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 survey and oral examination were carried out through a separate interview from July 1 through to July 30, 2015. A x2-test, t-test, one-way ANOVA,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 The number of natural teeth in the group of people under and over 74 was 9.92 and 7.01,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who were complete and partial dentures was 45.9% and 39.4% respectively. 48.2% and 31.1% of the elderly adults perceived their oral health to be moderate and poor, respectively. Regarding xerostomia, the subjects achieved a mean of 7.87 out of a maximum 12 points. Moreover those who were older and had fewer natural teeth felt that their xerostomia was more severe. The subjects xerostomia and perceived general health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perceived oral health.

Conclusions :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oral health programs to help hansen's people retain more of their natural teeth.

※ **Key Words** : hansen's people wearing denture, perceived oral health, xerostomia

서론

세계 각국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건강문제의 잠재적 심각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¹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고², 삶의 질의 결정인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어³ 건강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된다. 노인에서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노화현상으로 인해 신

체적, 정신적으로 쇠퇴되어 나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에서는 구강건강의 상실이 삶에 대한 의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연령증가에 따라 잔존 자연치아수가 감소하고 전체 치아 발거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⁴

치아상실이 곧바로 음식섭취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다수 치아의 상실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변화시키고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삶의 질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⁵ 특히, 이곳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들은 나균에 의한 말초신경 침범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손이 대부분의 의수, 갈고리 손, 손가락 마디의 절단⁶으로 잇솔질을 자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으로 다수의 치아 상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치성 감염이 다수 발생하며, 안면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기형을 초래하여 부정교합을 일으키고⁷, 구내 조직과 구외조직의 pressure atrophy와 하순이완의 결과를 가져와 식사 시 많은 양의 음식을 흘리고, 평상시에도 구강 밖으로 타액분비가 심해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⁸ 그 결과 이곳 소록도에 입원하고 있는 한센 환우들은 구강상태가 일반 환자들보다 불량할 뿐 아니라 안면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기형, 하순 이완으로 인하여 의치 장착이 힘들 뿐 아니라 손가락 마디의 절단, 갈고리손, 의수로 인하여 의치의 청결 상태의 유지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들의 평균 연령이 74세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치아상실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수 치아의 상실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자 흔히들 의치가 사용되어진다. 의치장착이 대부분 한센인들의 구강유지의 비결이라 하겠다.

그런데 끼었다 뺏다하는 의치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부 치아의 상실로 인한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한 한센인들에 비해서도 삶의 질과 관련된 구강건강의 문제점이 1.9배라고 보고되고 있어⁹, 다수치아의 상실은 그 기능의 일부를 회복시켜 줄지라도 돌이키기 어려운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검토된다. 따라서 다수 치아의 상실로 인해 의치를 사용하는 한센인의 구강건강을 검토하는 과정에는 구강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 욕구에 대한 평가 등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노인에서는 구강건조증이 많이 발생되어 음식섭취와 발음 등에 장애를 일으킨다. 구강건조증이란 '구강내 건조함에 대한 대상자의 표현'으로 정의되는 증상인데,¹⁰ 타액 유출량을 실제로 측정하기보다는 주관적 구강건조증 여부에 근거하여 정의되고 있다.¹¹ 특히 한센인들은 한센병 후유증으로 코에 장애가 많고 아랫입술이 처진분들이 많아¹² 입 마름증상을 많이들 호소하신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에서 이하선의 타액분비량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¹³, 노인의 타액분비량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이 전신질환과 그에 따른 약물 치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3,14} 노화와 타액분비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회의적인 연구결과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확실한 것은 노인에게서 구강건조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³, 많은 소록도 한센인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센인의 구강

※ 교신저자 : 오동찬
 전자우편 : odc2875@korea.kr
 주 소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국립소록도병원(061-840-0500)

건강을 검토하는 과정에 구강건조증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노인의 구강건강에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실태조사에 관한 것이고¹⁵, 전신건강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타액 혹은 영양 관련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었으나¹⁶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 치아의 상실과 구강건조증 등이 실제로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었다. 본인도 한센인의 구강건강과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은 있지만 한센인들과 오랜 생활을 하면서 지냈지만 이들의 치아상실로 인한 구강건조증에 관심은 갖고 있었으나 이러한 마음을 해야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 치아의 상실로 인해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한센인들의 일반적 특징과 더불어 구강상태와 구강건조증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를 조사하고, 의치 장착 한센인에서 구강건조증이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소록도에 거주하신 한센인 중 의치(부분의치 및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구강검사 도구를 가지고 한센인 100명에게 구강검사를 시행하고, 개별면담을 통해 설문응답(별첨 참조)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의 범위는 만 65세에서 88세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3.6세이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32명 여자가 68명이었다.

2. 연구도구 및 방법

구강검사에 의한 자료수집은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치과의사인 본인과 치과위생사 1인에 의해 실시되었고, 조사대상자인 한센인으로부터 의치장착여부와 잔존치아수를 조사하였다. 의치장착여부에 따라 총의치(Complete Denture : CD), 국소의치장착자(Partial Denture : PD), 총의치와 국소의치장착자로 구분하여 기록하였고, 잔존치아수는 상악전치부, 상악구치부, 하악전치부, 하악구치부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와 치과위생사가 구조화된 설문지(별첨 참조)를 이용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조사대상자인 한센인으로부터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조증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이번 연구목적에 맞게 자체 개발되었는데, 본 조사 실시전에 25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조사과정에서 애매모호하다고 확인된 설문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설문지는 연령, 성, 종교, 동거가족여부(혼자 또는 부부), 장착한 의치유형, 주관적 전신건강인지도 등의 일반적 특성 6문항과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 1문항 및 구강건조증에 대한 4문항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상태는 '1 = 매우 좋다', '2 = 좋다', '3 = 그저 그렇다', '4 = 나쁘다'의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하여서 그 범위는 1점에서 4점으로 시행하고, 역점수로 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이 좋다고 인지함을 의미하고, 구강건조증은 구강조직의 변화로 인하여 구강이 건조하여 나타나는 안위의 변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윌등이 Fox의 도구를 번역한 구강내 자각증상 점수를 사용할 것이다. '식사를 할 때 입이 마른다', '음식을 삼

키기가 어렵다', '마른 음식을 음료 없이 먹기가 매우 힘들다', '입안에 있는 타액의 양이 매우 적다고 느낀다'의 4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전혀 아니다 = 1', '간혹 그렇다 = 2', '항상 그렇다 = 3점'으로 특정하여서 총점수의 범위는 4점에서 12점으로 수행할 것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조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통계분석

SPSS 10.0 package를 이용하여 연령별의 치장착 한센인의 잔존 치아수와 장착의치 유형을 각각 t-검정과 χ^2 -검정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와 구강건조증의 차이는 t-검정 혹은 일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할 것이다. 연령, 잔존치아수, 주관적 전신건강 인지도,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 및 구강건강증과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할 것이고, 구강건강건강인

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성적

1. 대상자의 구강상태

1) 잔존 치아수

연령계층별 잔존 치아수의 비교결과, Table 1과 같이 75세 미만군의 잔존 치아수는 평균 9.92개이었고(단 root rest도 잔존치아로 포함시킴), 75세 이상군은 7.01개를 보유하고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잔존치아수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6$).

또한 두 집단 모두 상악, 하악 각각 전치부위의 잔존 치아수가 구치부의 잔존 치아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Number of natural teeth of subject*

Age(yrs)	N	Total	Mx.		Mn.		P-value+
			ant.	post.	ant.	post.	
Total	100	8.74±8.04	2.13±2.52	1.91±2.52	2.54±2.58	2.20±2.68	0.006
65-74	59	9.92±8.12	2.43±2.61	2.20±2.69	2.87±2.61	2.48±2.78	
≥75	41	7.01±7.65	1.70±2.31	1.48±2.18	2.06±2.48	1.80±2.47	

*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 P-value was computed by the t-test

2) 장착의치 유형

연령계층별 장착의치의 유형의 비교결과, Table 2와 같이 75세 미만군의 부분의치 장조증과 주관적 전신건강인지도가 주관적 구

착자가 44.0%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군에서는 총의치 장착자가 53.6%로 가장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0.128$).

Table 2. The type of denture of subject

Age(yrs)	N	Type of Denture			P-value+
		complete denture	partial denture	com & part.	
Total	100	46(45.9)	39(39.4)	15(14.7)	0.128
65-74	60	24(40.3)	26(44.0)	10(15.7)	
≥75	40	22(53.6)	13(33.0)	5(13.4)	

+ P-value was computed by the chi-square test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
 의치장착 한센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 건강 인지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이, 연령계층별 비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23), 75세 미만 군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가 그

저 그렇다 55.1%, 나쁘다 25.0%로 나타난 반면에 75세 이상군은 나쁘다 40.2%, 그저 그렇다 38.2%로 조사되었다. 성별, 종교, 교육수준, 가족동거여부, 장착하고 있는 유치 유형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구강 건강 인지도에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p>0.05).

Table 3. Perceived oral health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Perceived oral health(N(%))			p-value*
		very good or good	moderate	poor	
Age(yrs)	total	21(21%)	48(48%)	31(31%)	0.023
	65-74	12(19.9%)	33(55.1%)	15(25.0%)	
	≥75	9(21.7%)	15(38.0%)	16(40.2%)	
Gender	total	20(20%)	49(49%)	31(31%)	0.827
	male	6(18.6%)	17(51.4%)	10(30.0%)	
	female	14(21.0%)	32(47.1%)	21(31.8%)	
Religion	total	21(21%)	48(48%)	31(31%)	0.752
	protestant	14(21%)	33(49%)	20(30%)	
	catholic	7(22%)	15(45%)	1(33%)	
Living together	total	20(20%)	49(49%)	31(31%)	0.186
	spouse	12((23%)	27(51%)	14(26%)	
	living alone	8(17%)	22(47%)	17(36%)	
Type of denture	total	19(19%)	49(49%)	32(32%)	0.357
	CD	6(13%)	24(52%)	16(35%)	
	PD	10(26%)	18(46%)	11(28%)	
	CD+PD	3(20%)	7(47%)	5(33%)	

* P-value was computed by the chi-square test or Fisher's exact test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조증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조증의 차이는 Table 4와 같았고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 값은 7.87점이었다. 연령계층에 따른 자각증상의 차이비교결과, 75세 미만군에서 7.48점으로 75세 이상군의 8.04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증령에 따라 구강건조증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가족과의 동거 유형에 따른 비교결과 혼자 사는 한센인들이 부부로 사는 한센인들에 비해 구

강건조증이 8.14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p=0.853). 장착한 의치 유형에 따른 비교결과, 총의치와 국소의치를 함께 장착하고 있는 군에서 8.28점이었고, 총의치 장착자 군에서 8.20점이었으며, 국소의치 장착자 군에서 7.43점으로 나타나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6), 성별, 종교 같은 특성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p >0.05).

Table 4. Perception of dry mouth on eating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y	N	Perception of dry mouth on eating	
			M ±S.D.	*p-value
Total		100	7.87±2.16	
Age(yrs)	65-74	59	7.48±2.06	0.001
	≥75	41	8.44±2.17	
Gender	male	32	8.01±2.30	0.593
	femail	68	7.85±2.08	
Religion	protestant	67	8.07±2.10	0.682
	catholic	33	7.62±1.58	
Living together	spouse	53	7.62±2.25	0.853
	living alone	47	8.14±2.28	
Type of denture	CD	46	8.20±2.26 ^{ab}	0.026
	PD	39	7.42±1.92 ^a	
	CD+PD	15	8.28±2.23 ^b	

* Mean±Standard Deviation by 4 point likert scale and range score was from 4 to 12

** P-value were computed by the t-test or one-way ANOVA

^{ab} The same letters were not significant by Turkey's multiple comparison α=0.05

4. 연령, 잔존치아수, 주관적 건강인지도,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 및 구강건조증 간의 상호연관성

연령, 잔존치아수, 주관적 전신건강인지도,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 구강건조증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분석결과, Table 5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잔존치아수가 적었고, 구강건조증을 더 심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잔존 치아수가 적을수록 주관적인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였고, 구강건조

증은 심하다고 인지하였다. 구강건조증은 주관적 전신건강 인지도와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와는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5. 잔존치아수, 구강건조증과 주관적 전신건강 인지도가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의치장착 노인에서 구강건조증이 심할수록 주관적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p=0.014), 주관적 전신건강 인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가 높았다(p<0.001).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33.5%이었다. (Table 6)

Table 5. Relating of age, natural teeth, perceived general health, perceived oral health and perception of dry mouth on eating

Variable	A	B	C	D	E
A	1.000				
B	-0.266*	1.000			
C	-0.001	0.125	1.000		
D	-0.097	0.201*	0.556	1.000	
E	0.248*	-0.289	-0.460*	-0.402*	1.000

* p < 0.05

A: age, B: natural teeth, C: perceived general health, D: perceived oral health, E: perception of dry mouth on eating

Table 6. The effect of natural teeth, perception of dry mouth and perceived general health on perceived oral health in elders

Independent variable	Perceived oral health		
	B	S.E	p-value
Perception of dry mouth on eating	-0.057	0.02	0.014
Perceived general health	0.455	0.058	<0.001
Natural teeth	0.008	0.005	0.141
Adjusted R ²		0.335	

고 찰

노화에 의한 쇠퇴과정은 대부분이 생리적 체계변화에서 발생한다.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는 적응능력의 저하와 생리

적인 적응능력의 감소이며, 구강건강문제로는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구강건조증이 있다. 구강조직의 변화로 인해 노인이 경험하는 구강건조증은 ‘식사를 할 때 입이 마른다’,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다’, ‘마른 음식을

음료없이 먹기가 매우 어렵다’, ‘입안에 있는 타액의 양이 매우 적다고 느낀다’ 등이다. 이곳 소록도에 입원하고 있는 한센 환우들은 구강상태가 일반 환자들보다 불량할 뿐 아니라 안면신경 마비로 인한 안면 기형, 하순 이완으로 인하여 의치 장착이 힘들 뿐 아니라 손가락 마디의 절단, 갈고리손, 의수로 인하여 의치의 청결 상태의 유지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들의 평균 연령이 74세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치아상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수 치아의 상실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자 흔히들 의치가 사용되어진다. 그런 이유로 타액 분비량도 적어 식사시 많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 한센인들이 느끼는 구강건조증은 최소 4점에서 최대 12점의 기준으로 해서 7.87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조사되어서, 김¹⁸ 등이 일반노인들을 조사한 구강건조증이 5.19점이었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의치장착 한센인에서의 구강건조증은 심각한 문제라고 검토되었다.

조사대상 한센인들의 잔존치아수는 평균 8.7개(잔존치근 포함)로 박 등¹⁹이 도시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잔존치아 수가 10.9개(임플란트 제외)였다는 결과보다 다소 적은데 이는 이번 연구의 조사대상에 의치장착자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과 오에 의한 연구결과 한센인들의 손 장애로 인한 잇솔질의 어려움으로 치아상실이 많은 원인으로 분석되어진다. 그런데 비록 조사대상자가 의치를 장착한 한센인들로 국한된 결과이긴 하지만 100명의 의치장착자 중에서 10개 미만의 차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곳 소록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의 구강건강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 한센인 중에서 의치장착 유형은 75세 미만의 경우, 부분의치 장착이 44%로 가장 많았으나, 75세 이상군은 부분의치 장착이 33%로 낮아지면서 총의치 장착자가 53.6%로 높게 나타나 연령 증가와 함께 자연치보 유율이 낮아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대한 연령계층별 분석결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세 미만군과 75세 이상군에서 각각 25%와 40.2%로 조사되었는데 권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연령군에서 각각 25.1%와 24.5%로 보고된 바 있어, 75세 미만군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75세 이상군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박등¹⁹의 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한센인 중에 의치장착자로 한정되었기에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가 보다 열악한 것을 반영하여 결과로 해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구강건조증은 75세 미만의 경우, 7.48점에 비해 75세 이상의 경우 8.44점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구강건조증이 높게 조사된 점은 점차적으로 노쇠로 인한 전신질환이 증가됨으로서 약물복용에 의한 결과라 여겨진다. 특히 한센인들 대부분 고령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한센병으로 인한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드신분들이 많아서 이로 인해 구강건조증이 더욱 더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구강건조증은 Avcu 등¹이 60세 이상의 여자노인이 67.6%로 남자노인 44.2%보다 구강건조증이 더 많았다는 보고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남자의 경우 8.01점, 여자의 경우가 7.85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남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의치유형에 따른 대상자의 구강건조증은 총 의치나 총의치와 부분의치 병행 착용자가 부분의치만 장착한 경우보다 건조증세를 심하게 자각한다는 결과에서 John 등⁹이 고정성 보철물에 비해 가철성 보철물의 경우 삶의 질에 있어 구강건강문제가 1.9배 높았다는 연구보고와 상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잔존치아수, 주관적구강건강인지도, 주관적 전신건강인지도, 구강건조증의 상관관계에서 잔존치아수는 구강건조 자각증세와 역상관 관계로 나타난 점은 조 등이 잔존치아가 적을수록 음식물을 섭취할 때 장애호소율이 높았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와 구강건조증은 역상관 관계라는 김과 권의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Ikebe 등²⁰은 노인들이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에 구강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4배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한센인들이 구강건조증이 주관적인 구강건강인지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체적으로 의치장착을 하고 있는 한센인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현존 치아수가 감소하고 구강건조증이 심하여 주관적으로 구강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기에 예방중심의 노인구강보건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 첫째, 한센인들에게 발생된 구강병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자연치아 보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인 구강보건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한다. 둘째, 전신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만성질환을 최소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한센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구강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의치(총의치, 총의치+국소의치, 국소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한센인들의 구강건조증 수준과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상태를 알아보고, 일반적 특성과 구강건조증이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도하였다.

국립소록도병원 구강보건실(치과)를 이용하는 한센인 중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의 10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 한센인의 잔존치아수는 75세 미만군이 9.92개, 75세 이상군은 7.01개로 나타났다.
2. 총의치 장착자는 45.9%, 부분의치 장착자는 39.4%이었다.
3. 대상 한센인의 48.2%가 주관적 구강건강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고 31.1%는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4. 구강건조증은 최고 12점에서 7.87점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고, 잔존치아가 적을수록 증상이 심하다고 인지하였다.
5. 구강건조증과 주관적 전신건강 인지도는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감안하여 한센구강보건프로그램 개발시 자연치보유율을 보다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보철물장착 한센인들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조증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Avcu N, Ozbek M, Kurtoglu D, Kurtoglu E : Oral finding and health status among hospitalized pati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ged 60 or above. Arch Gerontol Geriatr 2005;41:69-79
2. Ban yong-seok, Song keun-bae etc. :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RPD among patients in private Dental Clinics. JKAOH 2001;25(1):79-94.
3. Cassolato SF, Turnbull RS : Xerostomia clinical aspects and treatment, Gerodontol 2003;20:64-77
4. Kelly M, Steele J, Nuttall N, et al : Adult dental health survey oral health in the United Kingdom. London-The Stationery Office. 2000.
5. Sullivan DH, Martin W, Flaximan N, Hagen JE : Oral health problem and involuntary weight loss in a population of frail elderly. J Am Geriatr Soc 1993;41:725-731
6. Pfaltzgraff RE, Raumu G. : Clinical leprosy, Hasting RC, editor. Leprosy, 2nd ed.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44:237-287.
7. Oh dong-chan : An analytical on the oral health state in leprosy patients, Korean Leprosy Bulletin 2002;35(1):89-121.
8. Oh dong-chan, Yoo bu-rim, Park jaw-woo, Kim jung-won : An analytical on the periodontal conditions and traetment in leprous patients, Korean Leprosy Bulletin, 2005;38(2):83-85.
9. John MT, Slade GD, Szentpetery A, Setz JM :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treated with fixed, removable, and complete dentures 1 month and 6 to 12 months after treatment. Int J prosthodont 2004;17:503-511
10. Fox PC, : Management of dry mouth. Dent Clin North Am 1997;41(4):863-875
11. Billings RJ, Proskin HM, Moss ME : Xerostomia and associated factors in a community-dwelling adults population. Commuity Dent Oral Epidemiol 1996;24: 312-316
12. Oh dong chan, Kim YE : Oral health repair with Reconstruction of lip in leprous patients, Korean Leprosy 1997;30(2):5-8
13. Ghezzi EM, Ship JA : Aging an secretory reserve capacity of major salivary glands. J Dent Res 1994;73:1416-1420
14. Sreebny LM, Schwarts SS : A reference guide to drugs and dry mouth. Gerodontol 1997;14(1):33-47
15. Park JS, LEE KH : Caries pattens in adult dentition by caries experience of individual teeth. J Korea. Acad pediater Dent 2010; 37:159-167
16. Choi EG, Park KI : Dentifrice containing some oriental medicine and bamboo salt,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2;26(2):169-18.
17. Fox PC, Busch KA, Baum BJ : Subjective reports of xerostmia and objective measures of salivary gland performance. J Am Dent Assoc 1987;115:581-584
18. Kim YN, Kwon HK : Subjective oral health perception of Korean low socio-economic elderly, JKAOH 2004;28(2):257-265.
19. Park JH, Kwon Hk, Kim BI, Choi CH, Choi YH : A survey on the oral health

condition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eople resident in free asyum. JKAOH 2002;26 (4):555-566.

20. Ikebe K, Matsuda K, Morii K, et al : Impact dry mouth and hyposalivation on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elderly Japanese. Oral Surg Oral Med Pathol Oral Radiol Endod 2006;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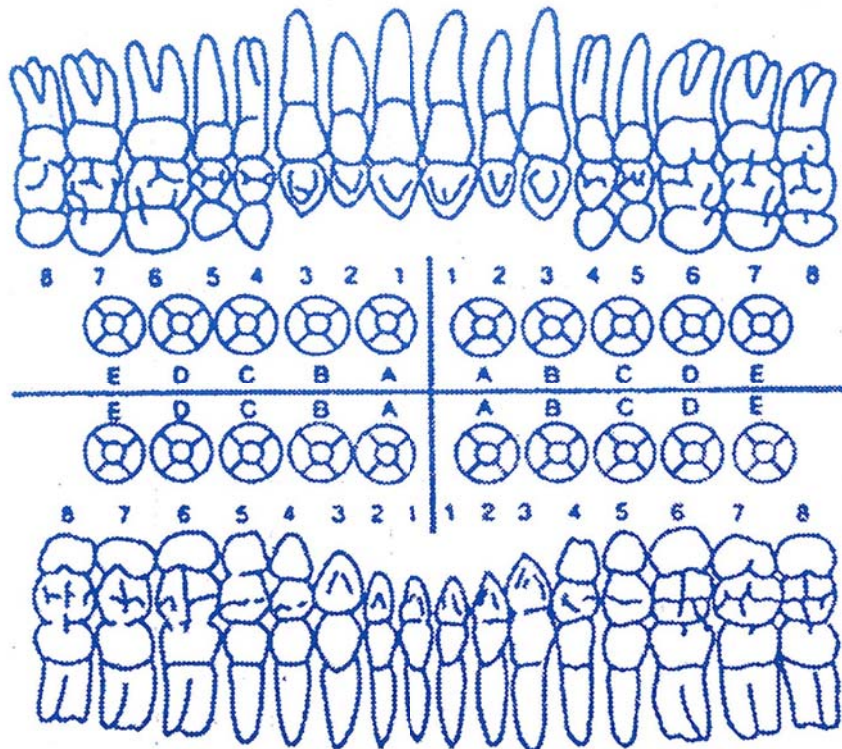
별첨

2015년 구강 건강 검진 및 면접조사기록부

본 설문지는 원내에서 거주하시는 한센인 중 의치(부분의치, 총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분으로 구강상태와 구강건조증 및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를 조사하고 의치 장착자에서 구강건조증이 주관적 구강건강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향후 소록도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의 구강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이 연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잔존치아 검사(치경, 탐침, 편셀)

이름:



S : Sound

M: Missing

R: Root Rest

